

# 전기차에 ESS까지... ‘포스트 반도체’ 2차전지 풀충전

〈에너지저장장치〉

##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 ⑧ 2차 전지 〈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주목  
포스트 반도체로 미래먹거리 부상

글로벌 車업계 전기차 판매 본격화  
배터리 공급망, 생산거점 등 확대

2차전지 산업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성장할 분위기다. 상반기 여러 악재로 주춤했지만, 업황 개선이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주력으로 성장시키는 분야다. 포스코 케미칼 등 소재 관련 업계도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차전지를 기반으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관련 업권이다.

2차전지는 스마트폰 등 IT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



LS산전 관계자가 ESS(에너지저장장치)용 PCS(전력변환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LS산전

스트 반도체’로 불리며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국내 2차전지 업계는 글로벌 기업에 뒤처져있다. 중국 CATL과 BYD, 일본 파나소닉 등이 오랜 역사와 생산력을 앞세워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까지도 국내 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해왔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ESS 화재 사건이 배터리 문제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적은 더 나빠졌다.

1분기를 기준으로 LG화학은 1479억

원, SK이노는 86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SDI도 중대형 배터리 부문에서는 수백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2분기에도 수백억대 영업이익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간 다툼도 있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를 상대로 영업기밀을 빼갔으며 소송을 건 사건이다. 소송전은 양사의 2차전지 사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LG화학이 승소한다면 기술

을 쓰지 못하게 되는 SK이노는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시장이 하반기부터 2차전지 업계 호황을 점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대표적이다. 테슬라가 상반기 모델3 등 전기차 생산성을 대폭 안정시킨 가운데, 폭스바겐과 닛산, BMW 등 글로벌 차업체가 전기차를 새로 출시하거나,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국내 업계는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고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다. 중국과 유럽, 미국 등에 생산 거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도 국내 업체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까지도 중국은 국산 배터리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보조금을 폐지하면 기술력이 낮은 현지 업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4년까지 매출 59조원 규모의 글로벌 톱5 화학기업으로 도약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는 LG화학이 하반기부터는 전지부문 적자폭을 큰폭으로 줄이며 본격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업계를 강타했던 ESS 리스크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ESS 화재 원인을 제품이 아닌 관리 소홀로 분석하면서다. 각사는 안정성을 더 보완한 제품을 내놓고 시장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ESS 업계도 다시 뛰는 모습이다. LS산전은 최근 전력변환장치(PCS) 신제품으로 국내 최초 품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국내와 일본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 등 사업을 잇따라 따내는데 성공했다. SK C&C도 현대일렉트릭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플랫폼 개발에 나서며 신뢰도 구축에 나섰다.

변수는 원재료다. 주 원료 중 하나인 니켈 가격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원가 부담이 문제다. 포스코케미칼도 생석회화 화석품 원가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김재웅·정연우 기자 yuk@metroseoul.co.kr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울란바타르 취항식에 참석한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시아나 몽골 울란바타르 주 3회 신규취항

아시아나항공이 9일 ‘칭기즈칸의 도시’ 몽골 울란바타르에 주 3회(화, 목, 토) 신규 취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서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가졌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인천 21시 05분 출발 / 울란바타르 23시 50분 도착, 울란바타르 다음날 01시 20분 출발 / 인천

05시 30분 도착이며, 토요일은 인천 20시 45분 출발 / 울란바타르 23시 25분 도착, 울란바타르 다음날 00시 50분 출발 / 인천 05시 도착한다.

9월 1일부터 토요일 출발편은 인천 출발시간이 21시 35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90석 규모의 A330 항공기를 투입해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돕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울란바타르 노선 신규 취항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 LS전선아시아, 호찌민 중전압 케이블 증설

현지 생산법인에 41억 투자  
연간 생산 능력 29% 확대

LS전선아시아가 베트남 공략에 힘을 더했다. LS전선은 10일 베트남 호찌민시에 중전압 케이블 라인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 LSCV에 약 41억원을 투자한다. 연간 생산 능력을 현행 9300만달러에서 1억 2000만달러로 29% 늘릴 수 있다. 베트남 중전압(MV) 케이블 시장 48%에 해당한다.

LS산전은 호찌민 전력 지중화 사업과 인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장이 연

간 10% 이상 고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LS전선아시아 권영일 대표는 “케이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작년 4월 설비를 증설한 지 불과 1년만에 추가 증설을 하게 되었다”며 “베트남은 현재 전기 보급률이 38%에 불과하여 향후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에 생산법인 2개를 두고 현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5월 미안마에도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시장 확대를 준비 중이다.

/김재웅기자

## 현대로템, 차륜형장갑차 품질개선 나서

품질개선 협의체 참가, 현황 점검  
데이터 분석결과 공유, 조치 검토

현대로템이 차륜형장갑차 품질개선 나선다.

현대로템은 9일 육군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주관한 ‘차륜형장갑차 야전 품질개선 협의체’에 참가해 차륜형장갑차의 품질개선 현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발족된 ‘차륜형장갑차 야전 품질개선 협의체’의 두 번째 모임으로 차륜형장갑차의 실사용자인 우리 군을 비롯한 기품원, 현대로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작년 대비 추가로 축적된 차륜형장갑차 야전 운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품질개선점 및 조치사항들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실제 차륜형장갑차를 운용하며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품질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기품원은 야전 품질 정보 및 양산공정에



9일 육군수도방위사령부에서 기품원이 주관한 ‘차륜형장갑차 야전 품질개선 협의체’에서 김경로 기품원 기동화력1팀장(첫 줄 왼쪽 여섯 번째), 김성훈 육군본부 총수명관리과장(첫 줄 왼쪽 일곱 번째), 안경수 현대로템 방산영업실장(첫 줄 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의 품질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현대로템은 이러한 품질 분석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개선 현황을 발표하는 등 고품질의 차륜형장갑차를 만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차륜형장갑차는 보병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을 통한 전투력 증강을 목적으로 개발된 차량으로 6×6 보병수송용 K806과 8×8 보병전투용 K808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현대로템이 지난 2016년

초도양산 물량 수주에 이어 2017년에는 2차 양산 물량까지 수주해 현재 양산 및 전력화가 진행 중이다.

현대로템은 차륜형장갑차 등 차륜형 장비 관련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차륜형장갑차의 계열형 차량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체계개발사업도 수주해 내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차 ‘대학생 자율차 경진대회 본선’ 개최

“이번 대회는 인재육성을 위해 기획된 만큼 오늘 참가한 대학생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

박동일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10일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열린 ‘제 14회 미래자동차 기술 공모전: 2019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본선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개최한 2019 대학

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이다.

14회째를 맞이한 올해 대회는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라는 대회 목적에 걸맞게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케이시티에서 열렸다.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위치한 케이시티는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이 곳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도심부도로,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 등 도시 환경이 그대로 재현된 것은 물론 V2X

(차량과 사물간) 통신과 같은 첨단설비가 갖춰져 있어 실제 도로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다.

이번 12개 참가팀들은 지난해 4월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제공한 연구용 차량 i30 1대와 제작지원금 7000만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연습주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왔다.

/정연우 기자 ywj964@